

태도의 면역기제 :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이수원·이영훈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태도의 면역은 개인의 태도를 위협하는 정보에 자주 노출되어 항체를 형성하게 되면 점차 강한 설득공격이 오더라도 저항력이 커져 이를 이겨내게 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현상의 기저에 있는 항체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태도의 면역이 태도구조에서의 변화, 즉 양극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의 변화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면역처치는 대립되는 두 태도 예컨대, 이담기지지와 이안담기지지자를 서로 배타적인 단일차원에서 양극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던 것을, 두 태도가 서로 준거를 달리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동시에 함께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두 태도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설득의 방향에 따라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더라도 이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게 되어 태도의 면역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이 가정은 이담기를 주제로 삼은 두가지 실험을 통해서 뒷받침되었다.

면역현상은 인체가 약한 병원과 싸워서 일단 이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게 되면 점차 강한 병원 이 침투하더라도 저항력이 커져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McGuire(1964)는 이같은 현상이 신체질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정신현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한번도 공격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마치 무균상태에서 성장하여 항체를 형성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과 같다고 보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공격을 받아 본 사람보다 설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강한 공격을 받게 되면 자신의 신념이 쉽게 꺾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문화적 공리'(예, 이담기)를 태도대상으로 선정하여, 피험자중에 한 집단

에게는 그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주고나서 그 정보를 반박하도록(반박집단) 훈련시켰으며, 다른 집단에게는 그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주고 나서 이를 옹호하도록(옹호집단) 훈련시켰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두 집단에게 문화적 공리를 공격하는 강한 설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반박집단은 설득에 저항을 하여 태도가 변화되지 않은 반면에 옹호집단은 태도가 변화되었다. 그는 이 결과를 반박집단에서 형성한 두가지 종류의 방어기제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다. 첫째 방어 동기의 생성이다. 문화적 공리에 속하는 신념들은 사람들이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평소에 방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박집단에서 막상 부정적 정보에 접하게 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화적 공리도 이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방어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둘째 방어에 대한 연습

기회의 제공이다. 문화적 공리는 평소에 공격을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방어에 대한 연습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박집단에서 부정적 정보를 반박하는 훈련을 쌓게 되면 방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McGuire(1964)는 옹호집단과는 달리 반박집단에서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 정보를 통해서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 또한 방어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이같은 생각은 결국 대부분의 학습이론에서 나타나는 두개의 고전적 변인 즉, 동기과 연습을 가지고 태도의 면역현상을 설명한 것이 된다. 그런데 최근에 태도변화에서 사전경고(forewarning)의 효과를 연구한 학자들은 공격에 앞서서 사전경고를 하게 되면 McGuire가 면역효과로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즉, 공격에 앞서 사전경고를 해주면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려는 동기가 유발되며 또한 가능한 여러가지 방어 수단이나 책략을 생각해 보고 직접 이를 연습해 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Hass와 Grady(1975)는 방어동기와 방어연습으로 이루어지는 면역효과는 사전경고를 받는 사람이 닦아오는 공격에 대비하여 사전무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면역이라는 것이 사전경고의 효과와 같은 것인가? McGuire(1964)는 태도의 면역현상을 생물학적 면역과 같은 것으로 유추하였는데 그렇다면 태도에서는 사전경고만 받고도 생물학적 면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항체가 형성된다는 것인가? 그 자신도 태도의 면역이 부정적 정보를 접하여 이에 저항할 때 형성되는 것이지 단순히 사전경고만을 받고서도 형성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부정적 정보를 통해서 형성하는 항체의 정체란 무엇인가?

그는 태도의 면역을 생물학적 면역에서 유추하면서도 생물학적 면역에서 나타나는 항체에 비견할 수 있는 태도에서의 항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태도에서 항체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항체가 어떻게 해서 공격에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반박훈련이 방어 동기나 방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증거

도 제시하지 못하였다(Kiesler, Collins, 및 Miller, 1969). 따라서 그의 설명은 아직은 하나의 가설적 구성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반박훈련을 통해서 형성하는 항체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공격에 저항력을 갖게 되는가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은 반박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구조가 양극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도구조에서의 이같은 질적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공격에 저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일찌기 Kerlinger(1967)는 사회적 태도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양극적(bipolarity)이 아니며 이원적(duality)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양극적이라 함은 대립되는 두 태도가 단일차원에서 양극에 위치함을 뜻한다. 그런데 주어진 대립이 양극적이 되려면 이들 태도들의 준거가 같아야 한다. 준거가 다른 태도들은 주어진 태도대상의 두 측면 즉 이원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교육에 대하여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대립할 때 그들의 준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수주의자는 지식도야, 인격함양, 교과과정 같은 것을 준거로 삼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는 아동 흥미, 개인적성, 사회적응과 같은 것을 준거로 삼았다. 여기서 보수주의자의 준거는 진보주의자에게는 준거가 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서로 다른 준거에 기초해서 그들의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대립은 그 성질이 양극적이기 보다는 이원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태도의 대립을 개인간(inter-individual)수준에서 볼 때 그렇다. 개인내(intra-individual)수준에서 보게 되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은 양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 개인은 보수주의자의 준거와 진보주의자의 준거중 어느 하나의 준거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보수주의자이면 보수주의자의 준거를, 그가 진보주의자이면 진보주의자의 준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진보주의자의 준거와 보수주의자의 준거중 어느 한 준거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립을 양극적인 것으로 보게 된

다. 그런데 최근에 Katz와 Hass(1988)는 한 개인이 두가지 준거를 동시에 함께 갖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날 미국의 많은 백인들이 흑인에 대하여 호의적 감정과 비호의적 감정의 양가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같은 양가감정이 두가지 상반된 가치 즉, 청교도 윤리관과 호혜평등주의가 한 개인내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야기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백인들이 흑인을 청교도 윤리관에 준거해서 볼 때는 비호의적 감정을 갖게되는 반면에 호혜평등주의에 준거해서 볼 때는 호의적 감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양가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수원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이수원과 신현숙, 1986; 이수원과 박영석, 1988)에서도 거듭 밝혀졌다. 최근에 이수원과 김태준(1988)은 주어진 태도대상을 하나의 준거에서만 판단하던 아동들이 조망확대를 통해서 두가지 준거에서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태도대상 '개기르기'를 찬성하는 아동들에게 이를 반대하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종의 역할놀이를 시켰다. 그 결과 개기르기를 놀이감으로만 보던 아동들이 이를 일거리로서도 볼 수 있게 됨을 발견하였다. 즉, 이들 아동들은 개기르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갖는 준거인 놀이감치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는 준거인 일거리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준거들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그가 주어진 태도의 대립을 양극적으로 보지않고 이원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사람은 개기르기를 지지하는 태도가 그것을 놀이감으로 보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며, 반대하는 태도가 그것을 일거리로 보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따라서 개기르기에서 대립하는 두 태도가 동일한 준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준거에서 얻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대립을 양극적으로 보지 않고 이원적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한 개인이 태도의 대립을 이원적으로 보게 되면 양극적으로 볼 때와는 주어진 대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식이 달라진다. 태도의 대립을 양극적으로 본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의 동일한 준

거에서 대립되는 태도대상들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놀이가치 또는 일가치중에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가지고 개기르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놀이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개기르기를 '찬성하는 것'을 지지하게 되며, '반대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를 기르는 것은 재미있지만 기르지 않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다—재미없다의 놀이가치차원에서 '재미있다'는 좋은 것이며 '재미없다'는 나쁜 것이다. 따라서 재미없다—재미있다는 놀이차원은 나쁘다—좋은 평가차원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이 차원에서 개를 기르는 것과 기르지 않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전자는 좋은 것으로 후자는 나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것은 개기르기에 대한 찬성태도와 반대태도를 전자는 좋은 것으로 후자는 나쁜 것으로 보게 한다. 즉, 이들 두 태도를 평가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태도의 대립을 이원적으로 보게 되면 대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이같은 사람은 개기르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그것을 놀이가치에서 보기 때문이며, 반대하는 사람은 일가치에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태도의 대립이라는 것이 대상을 판단하는 준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립되는 두 태도를 앞의 양극적 관계에서처럼 서로 배타적으로 보지 않으며, 함께 공존시키게 된다. 놀이가치에서 보면 개를 기르는 것이 좋으며 일가치에서 보게 되면 개를 기르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태도의 대립을 이렇게 이원적으로 보게 되면 주어진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때 그때 준거를 달리해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립되는 두 태도를 이렇게 각각 준거를 달리해서 볼 수 있게 되면 이 두 태도를 각기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를 기르는 것에 대한 판단준거와 개를 기르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준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람은 개를 기르는 것에 대한 태도가 개를 기르지 않는 것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개를 기르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곧 개를 기르지 않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를 기르는 것에 찬성하면서 또한 기르지 않는 것에도 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개를

기르는 것과 기르지 않는 것을 서로 다른 판단준거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개인의 태도구조가 양극적일 때와 이원적일 때 주어진 태도의 대립을 어떻게 달리 인식하게 되는가를 논의하였다. 그런데 태도의 면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해 온 태도대상들은 주로 그것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좀체로 접할 수 없는 문화적 공리(cultural truism)였다. '이닭기'가 그 한 예이다. 따라서 이같은 태도대상에서 개인의 태도구조는 항상 양극적이 된다. 왜냐하면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만을 갖고 있으며 부정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닭기 예에서 그것의 긍정적인 면(예, 청결하다)만을 알며, 부정적인 면(번거롭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닭기 지지자의 준거가치(불결하다—청결하다)만을 가지고 이닭기와 이안닭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자는 좋은 것이며 후자는 나쁜 것으로 평가차원에서 이 두 행동을 양극적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McGuire(1964)의 연구에서 반박집단은 공격에 앞서 미리 문화적 공리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주고 나서 이를 반박해 보도록 훈련시켰다. 그는 이 훈련이 반박집단에서 부정적 정보를 반박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험자들은 이같은 정보를 통해서 주어진 '문화적 공리'가 부정적인 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문화적 공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같이 긍정적인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피험자들이 주어진 문화적 공리의 부정적인 면을 알게 되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태도의 구조가 양극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문화적 공리의 긍정적인 면은 그 공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며, 부정적인 면은 그 공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다. 따라서 주어진 공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공리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태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찬성태도와 반대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신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 두 태도간의 대립을 양극적으로 보지 않고 이원적으로 보게

된다.

이닭기 예에서 피험자들이 찬성태도의 준거인 '위생가치(청결하다—불결하다)'와 반대태도의 준거인 '질박가치(간소하다—번거롭다)'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면 두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들간의 대립을 양극적으로 보지 않고 이원적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태도구조가 이렇게 이원적 구조를 갖게되면 서로 대립되는 이닭기 태도와 이안닭기 태도를 각기 독립된 태도로서 보게 된다. 즉, 이를 닭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곧 이를 닭지 않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것은 이를 닭는 것과 이를 닭지 않는 것을 서로 다른 판단준거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도의 구조가 양극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이를 닭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곧 이를 닭지 않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 그들은 이 두 태도를 하나의 동일한 판단준거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태도의 구조가 이원적일 때와 양극적일 때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양극적일 때 대립되는 두 태도 즉, 이닭기 태도와 이안닭기 태도중 어느 한 태도가 결정되면 다른 태도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원적일 때는 대립되는 두 태도중 어느 한 태도의 결정이 다른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즉 두 태도가 상호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왜 반박훈련을 시키면 설득에 저항할 수 있게 되는가가 분명해진다.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 정보를 접하게 된 반박집단은 그들의 태도구조가 이원적 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대립되는 두 태도 예컨대, 이닭기와 이안닭기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의해서 상호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반박집단에서는 주어진 설득공격에 대해서 이닭기와 이안닭기의 두 태도중 설득방향에 따라 어느 한 쪽 태도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른 쪽 태도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닭기와 이안닭기의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 쪽 태도에서의 변화가 다른 쪽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이닭기 예에서 설득의 방향이 이닭기의 부정적인 면인 질박가치 즉, 이닭기는 '번거롭다'와 이안닭기는 '간소하다'를 가지

고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만 이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McGuire(1964)의 연구에서 왜 반박집단은 설득공격을 받고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명해진다. 앞의 우리의 예언대로 한다면 반박집단에서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만 이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McGuire의 실험에서 이담기에 대한 태도만을 측정하고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도 측정했다면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반박훈련을 통해서 피험자들의 태도구조가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바뀌게 되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반박집단에서 이담기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원인이 이같은 피험자의 태도구조에서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가를 검증하려 하였다.

실험 1

이 실험에서는 반박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항체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항체가 어떻게 해서 공격에 저항할 수 있게 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반박훈련은 피험자의 태도구조를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검토되었는데 첫째 반박훈련은 이담기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의 준거(위생가치)와 반대하는 사람의 준거(질박가치)를 동시에 갖도록 해주는가? 그리하여 두 준거에서 동시에 이담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가? 둘째 반박훈련은 대립되는 두 대상 이담기와 이안담기를 평가차원에서 대립되게 보게 하지 않고 기술차원에서 대립되게 보게 하는가? 이 두 지표를 측정하여 반박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항체의 정체를 밝히려 하였다.

그리하여 태도의 구조가 이렇게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바뀐다면 이같은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공격에 저항력을 갖게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태도의 구조가 이원적이 되면 이담기 태도에 대한 준거와 이안담기 태도에 대한 준거가 서로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담기 태도와 이안담기 태도가 서로 독립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 태도가 바뀌더라도 다른 쪽 태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태도의 구조가 양극적일 때는 한 쪽 태도의 변화가 다른 쪽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쪽 태도가 모두 바뀌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박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면역의 효과는 공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범위를 두 태도중 한쪽 태도만으로 축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이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담기 태도와 이안담기 태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방 법

이 실험은 사전훈련, 사전검사, 공격처치, 사후검사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사전훈련에서는 피험자들을 반박집단, 옹호집단,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공격에 방어하는 훈련을 시켰다. 훈련이 끝난 직후 이 훈련의 조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공격처치는 사전훈련을 마친 이틀 후에 주어졌다. 공격처치가 끝난 직후 태도변화를 보기 위해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

고등학교 재학생인 남학생 165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학급별로 반박, 옹호, 통제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사전이나 사후검사에서 응답에 누락이 있는 피험자를 제외시켜 반박 44명, 옹호 46명, 통제 4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사전훈련

공격처치를 하기 전에 통제집단을 제외한 반박집단과 옹호집단의 두 집단에게 공격에 방어하는 훈련을 시켰다. 훈련은 학교의 정규 국어 수업시간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실험자는 대학 강사로서 학생들의 논술고사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초빙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실험자는 논술고사 작성법을 2회에 걸쳐 강의한다고 말한 후 오늘은 먼저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자가 제시하는 주제를 가지고 작문을 지어 보라고 하였다. 이 때 반박집단과 옹

호집단에게 준 지시는 아래와 같다. 지시는 유인물로 제시하였다.

반박집단 : 반박집단은 ‘이를 닦는 것’의 단점을 주고 이를 반박하는 글을 짓도록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이 조사는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문장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사람들은 왜 이를 닦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십시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에서 ‘이닦기’의 단점으로 칫재, 잇몸질환을 가져오며 둘째, 치아의 각질이 손상되어 이가 상하게 되며 셋째, 치주질환을 일으키며 넷째, 상한 이를 더 시리고 아프게 한다는 것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닦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서 이를 자주 닦지 말아야 한다는 위와 같은 의견들을 반박하여 왜 이를 자주 닦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한 논거를 적어 보십시오”였다.

옹호집단 : 옹호집단은 ‘이를 닦는 것’의 장점을 주고 옹호하는 글을 짓도록 지시하였다. “이 조사는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문장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사람들은 왜 이를 닦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십시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에서 ‘이닦기’의 장점으로 칫재, 잇몸을 튼튼하게 하며 둘째, 치아의 각질을 튼튼하게 하여 충치를 예방하며 셋째, 치주질환을 예방하며 넷째, 상한 이를 튼튼하게 하여 시리거나 아프지 않게 한다는 것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닦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서 이를 자주 닦아야 한다는 위와같은 의견들을 옹호하여 왜 이를 자주 닦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한 논거를 적어 보십시오”였다.

논술작성에 걸린 시간은 15분이었다. 논술작성이 끝난 후 학생들의 이닦기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가지 검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아무런 사전훈련을 시키지 않은 통제집단을 포함하여 세 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공격처치

사전훈련이 있는 이를 후에 공격처치를 하였다. 이때 실험자는 지난번 조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닦기’에 대한 글 중에서 잘 된 글을 하나 소개하겠다고

말한 후 공격 메시지가 적혀있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 메시지는 신건호(1985)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뉴스위크 최신포에서 이닦기의 해독에 관한 기사를 발췌한 것으로 위장한 글이다. 글의 내용은 치약의 성분을 분석한 어느 학자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치약에는 치주암과 위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하려 했는데 치약회사의 방해와 훼유로 발표하지 못하다가 학자적 양심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뉴스위크 기자가 이를 알게 되어 폭로하는 기사로 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신건호(1985)의 연구에서 설득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이 글을 읽어 주었다. 이 때 피험자들은 실험자가 지적하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게 하였으며, 이것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이 글을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실험자가 한 것처럼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도록 하였다. 이같이 하여 공격처치가 끝난 후 곧 이어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지난번 검사에서 이름을 적지 않은 학생이 여럿 있어서 부득이 다시하게 됐다고 위장한 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의 측정

이 실험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두번에 걸쳐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사전검사에서는 태도평정, 준거차원척도 및 차원분류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태도평정만을 하였다.

태도평정 : 이 실험의 주제인 이닦기에 대해서 묻는 여러가지 질문중에서 ‘이닦기’에 대한 태도는 이를 닦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물음으로서, 그리고 ‘이안닦기’에 대한 태도는 이를 닦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물음으로서 측정되었다. 이들 평정척도는 매우 나쁘다(-3)에서 매우 좋다(+3)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차원분류과제 : 이 과제는 태도의 차원분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수원과 신현숙(1986)이 제안한 기법에 따라 만들어 졌다. 먼저 이닦기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태도진술들을 예비적으로 82개를 선정하여 사회심리학을 전공하는 5명의 대학원생에게 주어진 신념이 ‘이를 닦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지 또는 ‘이를 닦지 않을 때

표 1. 이답기(A)와 이안답기(\bar{A})에 대한 태도진술들의 평가값(SD)

태도진술		평 가 값	태도진술		평 가 값
A ⁺	깨끗하다	3.64(1.35)	\bar{A}^+	편하다	2.64(1.87)
	개운하다	3.88(1.15)		꾸밈없다	2.60(1.38)
	근면하다	4.02(1.10)		간소하다	2.22(1.68)
A ⁻	귀찮다	-3.14(1.16)	\bar{A}^-	더럽다	-4.18(1.08)
	걸치장하다	-1.44(1.80)		텃텃하다	-2.44(1.44)
	번잡하다	-2.00(1.86)		계으르다	-3.14(1.95)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판단시켜 전원이 이를 닦는, 또는 닦지 않는 태도진술로 합의가 되는 것들만 골랐다. 이 결과 이를 닦을 때 나타나는 진술이 14개였으며, 이를 닦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진술이 14개였다. 이들 진술을 가지고 50명의 대학생에게 각 진술의 평가값을 나쁘다(-5)와 좋다(+5)의 11점 척도에서 평정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측정값을 바탕으로 이답기의 긍정적 진술(A⁺)과 부정적 진술(A⁻), 이안답기의 긍정적 진술(\bar{A}^+)과 부정적 진술(\bar{A}^-)을 각각 3개씩 12개를 표1처럼 선정하였다.

표 1의 진술들을 가지고 차원분류 과제를 제작하였다. 이 과제에서 각 자극은 이답기에 대한 진술 2개와 이안답기에 대한 진술 2개의 모두 4개로 구성되었다. 이 과제는 태도진술의 배합에 따라 단일차원, 상관차원, 직교차원과제의 세종류로 나누어 졌다. 단일차원 과제는 평가값을 고정시킨 것으로 A⁺A⁺ \bar{A}^+ \bar{A}^+ 나 A⁻A⁻ \bar{A}^- \bar{A}^- 의 형태가 각각 4개씩이었으며, 상관차원 과제는 평가값의 변화에 따라 기술값도 동시에 변화시킨 것으로 A⁺A⁺ \bar{A}^- \bar{A}^- 의 형태가 8개였다. 직교차원과제는 평가값과 기술값을 모두 서로 다르게 뽑은 것으로 A⁺A⁻ \bar{A}^+ \bar{A}^- 의 형태가 8개였다. 피험자들에게 이들 24개의 자극을 무선적으로 제시한 후 각 자극에서 예컨대, 깨끗하다(A⁺), 귀찮다(A⁻), 편하다(\bar{A}^+), 더럽다(\bar{A}^-)를 주고 '이를 닦을 때 나타나는 현상' 2개와 '이를 닦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2개를 고르게 하였다. 채점은 피험자가 이를 닦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A⁺와 A⁻를, 이를 닦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bar{A}^+ 와 \bar{A}^- 를 묶으면 정답으로 채점하였으며, 이와 다르게 묶으면 오답으로 채점하였다. 여기서 이 오답량이 차원분화의 지표가 된다.

준거차원척도 : 이 척도는 피험자가 이답기와 이안답기를 어느 차원에서 변별하는 가를 알아 보는 것으로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표 1에 나와있는 태도진술들에서 대각선에 놓여 있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진술들을 가지고 의미미분척도를 만든 것이다. 표에서 반대되는 진술의 쌍은 6개가 있다. 이 중에서 더럽다—깨끗하다, 텃텃하다—개운하다, 계으르다—근면하다의 3개는 '위생가치'로 대표되는 것들로 이답기 지지자의 준거인 반면에 귀찮다—편하다, 걸치장하다—꾸밈없다, 번잡하다—간소하다의 3개는 '질박가치'로 대표되는 것들로 이안답기 지지자의 준거이다. 이들 6개로 구성된 의미미분척도를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이답기와 이안답기를 이 척도상에서 각각 평정토록 하였다. 평정은 -3에서 +3까지의 7점척도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의 반응은 그림 1에서처럼 각차원에서의 변별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y는 이답기와 이안답기가 이답기 지지준거인 위생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이안답기 지지준거인 질박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y'는 그림에서 좌표점 0,0에서 좌표점 6,6을 잇는 선 즉, 부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두개의 특성(더럽다와 귀찮다)과 긍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두개의 특성(깨끗하다와 편하다)을 잇는 선에 이답기와 이안답기를 투사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로서, 결국 이 두 대상을 나쁘다—좋다의 평가차원에서 대립되게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 x'는 좌표점 0,6과 좌표점 6,0을 잇는 선 즉, 위생가치를 대표하는 두개의 특성(깨끗하다와 귀찮다)과 질박가치를 대표하는 두개의 특성(편하다와 더럽다)을 잇는 선에 이답기와 이안답기를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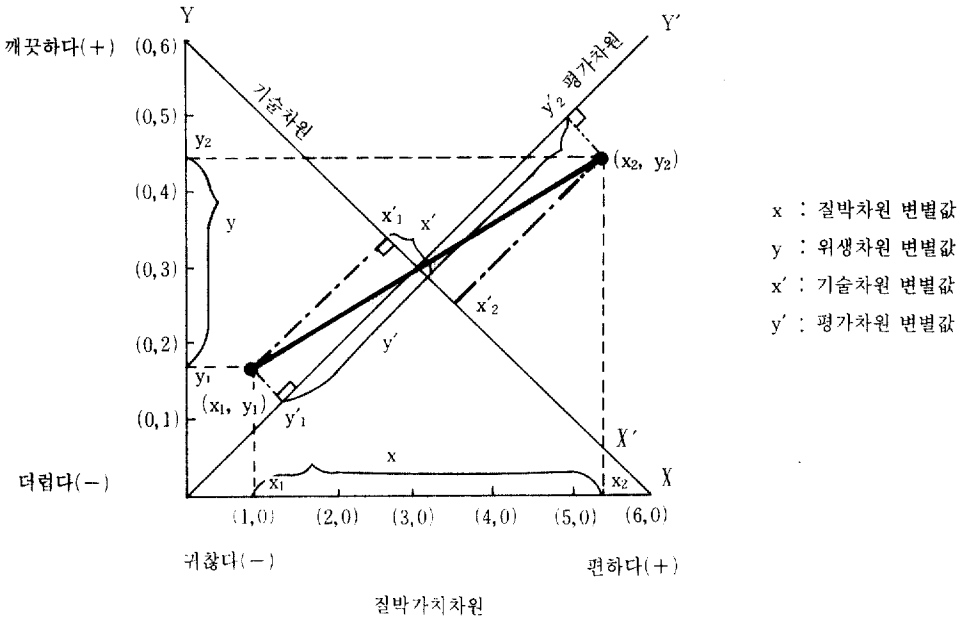


그림 1. 이담기와 이안담기에 대한 변별 차원들

결국 기술차원에서 이 두 대상을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의 계산은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에 따랐다.

결과 및 논의

사전훈련과 태도구조에서의 변화

앞에서 피험자의 태도구조가 사전훈련을 통해서 반박집단에서는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바뀌는 반면에 옹호집단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훈련이 끝난 직후 실시한 사전검사 결과를 세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박훈련이 옹호훈련과는 달리 피험자들로 하여금 이담기 지지준거(위생준거)와 이안담기 지지준거(질박가치)를 동시에 받아들여게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태도의 구조가 이원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대립되는 두개의 준거 즉 위생가치와 질박가치의 두 준거 모두에 입각해서 주어진 태도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검토하려고 수행되었다. 둘째 반박훈련을 통해서 피험자들은 태도대상 이담기와

이안담기를 전자는 좋지만 후자는 나쁘다와 같이 양자를 평가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되게 보지 않고, 전자는 청결함이 요구될 때 좋고, 후자는 질박함이 요구될 때 좋다와 같이 두 행동을 이원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준거차원척도에서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훈련을 통해서 태도의 차원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검토하였다. 옹호훈련을 받은 피험자들은 통제집단과 마찬가지로 태도의 차원구조가 평가차원으로만 되어 있는 반면에 반박훈련을 받게 되면 태도의 차원구조가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바뀌게 되는 가를 분석하였다.

표 2는 이담기와 이안담기에 대한 준거차원이 집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 1에 나와있는 위생차원 변별값(y)과 질박차원 변별값(x)을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위생차원변별값은 더럽다—깨끗하다, 더럽다—깨끗하다, 더럽다—깨끗하다, 더럽다—깨끗하다, 더럽다—깨끗하다의 3가지 척도에서의 이담기와 이안담기에 대한 평정값의 차이를 평균한 것이며, 질박차원변별값은 귀찮다—편하다, 귀찮다—편하다, 귀찮다—편하다, 귀찮다—편하다, 귀찮다—편하다의 3가지 척도에서의 이안담기와 이담기에

표 2. 위생과 질박차원에서 이닭기와 이안닭기에 대한 변별값(SD)

집 단	변 별 값	
	위생차원*	질박차원**
옹호 (n=46)	4.91 (1.23)	.22 (2.05)
반박 (n=44)	4.39 (1.48)	.90 (1.96)
통제 (n=46)	4.42 (1.25)	-.45 (2.00)

* 더럽다(1) ~ 깨끗하다(7) 등의 3가지 척도에서의 평균 변별값

** * 귀찮다(1) ~ 편하다(7) 등의 3가지

대한 평정값의 차이를 평균한 것이다. 위생차원변별값은 이닭기 평정값에서 이안닭기 평정값을 뺀 점수이며, 질박차원변별값은 이안닭기 평정값에서 이닭기 평정값을 뺀 점수이다.

표에서 보면 위생차원변별값은 세 집단 모두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질박차원변별값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이 결과는 피험자들이 이닭기와 이안닭기를 주로 이닭기 준거인 위생차원에서 변별하며, 이안닭기 지지준거인 질박차원에서는 변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닭기 주제가 우리사회에서의 문화적 공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닭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를 위생차원에 준거하여 형성할 것이라고 보았던 점을 감안할 때 미리 예상했던 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에서도 위생과 질박차원에서의 변별값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F(1,333)=447.55, p<.001$]. 그런데 이 경향이 집단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반박집단에서는 옹호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비해서 질박차원변별값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각 차원별로 변량분석을 했을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생차원에서의 분석은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F(2,133)=2.33, n.s.$], 질박차원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2,133)=5.10, p<.01$]. 질박차원에서의 결과는 개별비교를 한 결과 반박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다른 집단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 대 반박: $F(1,88)=10.45, p<.01$; 통제 대 옹호: $F(1,90)=2.54, n.s.$; 옹호 대 반박: $F(1,88)=2.55, n.s.$]. 따라서 이 결과로 부터 반박훈련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이닭기 준거를 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표 3.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에서 이닭기와 이안닭기에 대한 변별값(SD)

집 단	변 별 값	
	기술차원	평가차원
옹호 (n=46)	3.63* (1.62)	3.35 (1.71)
반박 (n=44)	3.84 (1.67)	2.53 (1.44)
통제 (n=46)	2.81 (1.60)	3.44 (1.73)

* 최저 변별값(0) - 최고 변별값(8.485)

이안닭기 준거도 갖게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옹호훈련을 받은 피험자들은 이안닭기 준거의 획득에서 훈련을 전혀 받지않은 통제집단과 같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평가차원과 기술차원 변별값에 대한 분석에서 나왔다. 표 3은 그림 1에 나와있는 방법에 따라 준거차원변별척도에서의 피험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집단별로 평가차원변별값(y)과 기술차원변별값(x)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반박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평가차원변별값은 가장 적으며, 기술차원변별값은 가장 크게 나왔다. 이 결과는 반박훈련이 이닭기와 이안닭기를 나쁘다 ~ 좋다는 평가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보려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이 양자를 위생과 질박의 두가지 가치로 이루어지는 연속선에서 변별하려는 경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차원변별값에서 집단간의 개별비교를 한 결과 반박훈련은 평가차원변별값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박 대 통제: $F(1,88)=7.39, p<.01$; 옹호 대 통제: $F(1,90)=.07, n.s.$; 반박 대 옹호: $F(1,88)=6.02, p<.01$]. 따라서 반박훈련은 옹호훈련과는 달리 이닭기와 이안닭기를 평가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보려는 경향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차원에서는 반박집단과 옹호집단의 변별값에서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의 개별비교를 해 본 결과 옹호훈련은 반박집단과 마찬가지로 기술차원변별값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옹호 대 반박: $F(1,88)=.34, n.s.$; 옹호 대 통제: $F(1,90)=6.05, p<.05$; 반박 대 통제: $F(1,88)=8.93, p<.01$].

그리하여 이 추세가 옹호집단에서 평가차원과 기술

차원을 분화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원분류과제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차원분류과제는 피험자들이 태도진술들의 분류에서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을 얼마나 분화하여 지각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태도진술의 함축된 의미에서 평가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피험자들은 기술차원을 변화시키고 평가차원을 고정시킨 단일차원과제에 비하여 이 두 차원을 같이 변화시킨 상관차원과제에서 주어진 태도진술들 사이의 비유사성을 보다 크게 지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차원에서의 의미에 따라 태도진술들을 분류할 때 과제수행의 촉진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두 차원을 서로 직교적으로 변화시킨 직교차원과제에서는 기술차원에 따라 태도진술들을 분류할 때 평가차원에 의하여 장애를 받기 때문에 단일차원과제에 비하여 과제수행의 간섭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상관차원과제에서의 촉진효과나 직교차원과제에서의 간섭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피험자의 차원분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표 4에서 각 과제유형에서 피험자들이 범한 오답량을 집단별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각 조건간의 변량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원점수를 역수환칙법($x=1/x+1$)으로 환적하여 집단×과제유형의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과제유형에 따른 오답량에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F(2, 266)=917.49, p<.001$]. 이 결과를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반박집단은 상관과제에서의 촉진효과나 직교과제에서의 간섭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촉진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133)=.96, n.s.$]. 그러나 간섭효과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133)=3.58, p<.05$]. 그리하여 간섭효과에 대하여 개별비교를 한 결과 옹호집단과 반박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옹호 대 반박: $F(1, 88)=9.06, p<.05$; 옹호 대 통제: $F(1, 90)=2.59, n.s.$; 반박 대 통제: $F(1, 88)=.86, n.s.$].

반박훈련과 옹호훈련이 피험자의 태도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결과에서 반박훈련은 옹호훈련과는 달리 태도대상 이단기를 판단할 때 태도가 대립되는 사람들이 준거로 삼는 두개의 대립되는 가치를 동시에 함께 갖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렇게 이단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준거인 위생가치와 반대하는 사람의 준거인 질박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 이단기 태도와 이안단기 태도를 평가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결과도 얻어졌다.

공격처치와 태도의 변화

앞에서 반박훈련이 피험자로 하여금 대립되는 두 태도 이단기 태도와 이안단기 태도를 서로 다른 준거에서 비롯된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어느 한 쪽 태도를 공격하면 그 태도는 변화되지만 다른 쪽 태도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반면에 옹호집단은 두 태도를 동일한 준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 태도가 공격을 받게 되면 그 태도는 물론 다른쪽 태도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표 5에서는 이단기와 이안단기에 대한 태도를 각각 따로 측정하여 공격처치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표에서 제시된 태도점수는 나쁘다(-3)~좋다(+3)의 의미미분척도를 편의상 이단기 태도는 나쁘다(1)~좋다(7)의 점수로, 이안단기 태도는 좋다(1)~나쁘다(7)의 점수로 환적하여 제시하였다. 표에서 사전검사의 결과를 보면 이단기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가 극히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옹호나 반박의

표 4. 차원분류과제에서 과제유형에 따른 집단별 오답량(SD)

집 단	과 제 유 형		
	단 일 차 원	상 관 차 원	직 교 차 원
옹호(n=46)	2.26*(1.06)	.10(.43)	5.64(1.35)
반박(n=44)	2.75(1.59)	.40(1.19)	5.32(1.52)
통제(n=46)	2.91(1.62)	.37(1.05)	5.79(1.21)

* 최저 오답량(0) ~ 최고 오답량(8)

표 5. 공격처치 전·후에 이담기와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SD)

집 단	태 도			
	이 담 기*		이 안 담 기**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옹호(n=46)	6.70(.59)	5.89(1.51)	6.46(.84)	5.46(1.73)
반박(n=44)	6.52(.70)	6.20(1.23)	6.36(.89)	5.45(2.11)
통제(n=46)	6.74(.57)	5.39(1.77)	6.30(.89)	5.00(1.75)

* 이담기 태도는 나쁘다(1) - 좋다(7)로 환척한 점수임

** 이안담기 태도는 좋다(1) - 나쁘다(7)로 환척한 점수임

사전훈련이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담기와 이안담기에 대한 사전태도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담기: $F(2, 133)=1.51$, n.s.; 이안담기: $F(2, 133)=.36$, n.s.]. 따라서 옹호나 반박의 사전훈련은 피험자들의 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격처치를 받은 후에 쟁 사후검사에서는 태도가 상당히 바뀌었다. 사전과 사후태도간의 변량분석 결과도 모두 유의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이담기: $F(1, 133)=39.14$, $p<.001$; 이안담기: $F(1, 133)=45.53$, $p<.001$]. 그런데 이담기 태도에서 이 추세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담기 태도에서 집단×검사시기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다[$F(2, 133)=5.07$, $p<.01$]. 그리하여 사전과 사후태도사이의 차이를 집단별로 개별분석한 결과 반박집단에서만 사전과 사후태도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반박집단: $F(1, 133)=1.92$, n.s.; 옹호집단: $F(1, 133)=12.79$, $p<.01$; 통제집단: $F(1, 133)=14.92$, $p<.01$]. 따라서 이담기에 대한 태도에서 공격처치의 효과는 옹호집단과 통제집단에서만 나타나며 반박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McGuire(196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반박집단은 공격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는 태도의 측정을 이담기에 대해서만 하였으며, 이안담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실험에서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를 측정된 결과 공격전과 후에 세 집단 모두에서 태도가 변화되었다[반박집단: $F(1, 133)=18.22$, $p<.001$; 옹호집단: $F(1, 133)=23.00$, $p<.001$; 통제집단: F

(1, 133)=38.87, $p<.001$]. 이렇게 볼 때 반박집단에서 공격전과 후에 이담기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은 McGuire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박훈련이 공격에 대한 방억동기나 방억연습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만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이안담기에 대해서도 반박집단의 태도는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결과는 앞에서 예언했던 것과 같이 반박훈련이 피험자로 하여금 이담기와 이안담기를 양극적으로 보지 않고 이원적으로 보게 하여 어느 한 쪽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다른 쪽 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실험에서 반박집단의 태도가 이담기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고 이안담기에 대해서는 바뀌게 된 것은 여기서 행한 공격처치의 방향이 이담기의 나쁜점과 이안담기의 좋은점 즉, 이안담기 지지자의 판단기준인 '질박가치'를 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뀐 반면에 이담기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공격처치 전과 후의 이담기 태도에서의 변화량과 이안담기 태도에서의 변화량간의 상관을 집단별로 내어 본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상관계수가 옹호집단에서는 $r=.38$ ($p<.05$)로 유의하게 나온 반면에 반박집단에서는 $r=-.14$ ($p>.05$)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 결과는 옹호집단에서는 이담기 태도에서의 변화가 이안담기 태도에서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반박집단에서는 이담기 태도에서의 변화가 이안담기 태도에서의 변화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옹호집단에서 공격후에 이담기 태도와 이안담기 태도가 모두 바뀐 것은 이안담기 태도에서의 변

화가 이답기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반박집단에서 이답기 태도는 바뀌지 않고 이안답기 태도만이 바뀐 것은 이안답기 태도에서의 변화가 이답기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험 2

면역의 효과를 공격에 대한 방어동기의 촉발과 방어 전략에 대한 연습으로 설명한 McGuire(1964)의 이론은 사전경고를 받은 피험자가 사전무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Hass와 Grady(1975)는 방어동기와 방어연습으로 이루어지는 면역효과는 사전경고를 받은 사람이 닦아오는 공격에 대비하여 사전무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사전무장은 사전경고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능한 여러가지 방어수단이나 책략을 생각해 보고 연습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McGuire(1964)가 반박훈련을 통해 얻게 된다고 보았던 방어동기나 방어연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면역이라는 것이 사전경고의 효과와 같은 것인가? 태도의 면역율 생물학적 면역현상과 같은 것으로 유추하고자 하는 한 그럴 수는 없다. 생물학적 면역은 항체생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사전경고를 통해서 무슨 항체가 생성될 수 있겠는가?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McGuire가 반박집단에서 나타나는 면역현상을 항체생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방어동기의 유발이나 방어에 대한 연습효과로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실험에서는 반박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면역은 사전경고의 효과와는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시도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반박집단과 옹호집단의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경고를 주는 조건에서도 반박집단은 공격에 저항을 하여 태도가 바뀌지 않으나, 옹호집단은 태도가 바뀐다고 가정하였다.

방 법

피험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183명이 실험에 참가 하였다. 이들은 실험1에서 처럼 반박, 옹호 및 통

제의 세 집단으로 반별로 나누어져서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사전이나 사후검사에서 응답에 누락이 있는 피험자를 제외시켜 반박 44명, 옹호 62명, 통제 55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사전훈련

실험1에서 처럼 통제집단을 제외한 두 집단에게 사전훈련을 시켰다. 반박집단과 옹호집단에게는 이 실험이 '집단토론'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반박집단에게는 "여러분은 다음 주 이시간에 '이를 닦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과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던지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답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에서 '이를 자주 닦는 것'의 단점으로 첫째, 잇몸질환을 가져오며 둘째, 치아의 각질이 손상되어 이가 상하게 되며 셋째, 치주질환을 일으키며 넷째, 상한 이를 시리고 아프게 한다는 것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답기'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이를 자주 닦지 말아야 한다는 위와 같은 의견들을 반박하여 왜 이를 자주 닦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거를 적어 보십시오"였다.

옹호집단에게는 "여러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를 닦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과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던지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답기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들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에서 '이를 자주 닦는 것'의 장점으로 첫째, 잇몸을 튼튼하게 하며 둘째, 치아의 각질을 튼튼하게 하여 충치를 예방하며 셋째, 치주질환을 예방하며 넷째, 상한 이를 튼튼하게 하여 시리거나 아프지 않게 한다는 것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답기'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이를 자주 닦아야 한다는 위와 같은 의견들을 옹호하여 왜 이를 자주 닦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거를 적어 보십시오"였다. 반박문이나 옹호문을 쓰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이었다. 사전훈련에서 준 다른 절차들은 실험1과 같

다.

공격처치

사전훈련이 끝난 일주일 후에 공격처치를 하였는데 이 때 실험자는 토론에 앞서 '이담기'에 관한 최근에 발표된 뉴스 하나를 소개하겠다고 말한 후 실험1에서 사용한 공격 메시지가 적혀 있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실험자는 이 글을 직접 읽어 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게 하였다. 실험자의 낭독이 끝난 후 피험자들은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토론에 참고가 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도록 하였다.

중속변인의 측정

이 실험의 중속변인은 사전훈련이 끝난 직후 실시한 사전검사와 공격처치가 끝난 직후 실시한 사후검사로 구성되었다. 사전검사에서 측정된 내용은 태도평정, 차원분류과제 및 준거차원척도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태도만을 평정케 하였다. 사용된 검사들은 실험1에서와 동일한 것들이었다.

결과 및 논의

사전훈련과 태도구조에서의 변화

실험1에서와 같이 반박훈련을 통해서 태도의 차원구조가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바뀌는가를 보기 위해서 세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6은 이담기 태도와 이안담기 태도에 대한 준거차원이 반박훈련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림 1에서 제시한 위생차원변별값(y)과 질박차원변별값(x)을 산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생차원변별값이 질박차원변별값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 피험자들이 주로 이담기 지지준거를 가지고 태도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실험1과 같은 결과이다. 실험의 주요 가설인 반박집단에서는 이안담기 지지준거인 질박차원에서 이담기와 이안담기를 변별할 것이라는 결과가 예상대로 나타났다. 차원별 변량분석에서 위생차원에서는 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F(2, 158)=2.48, n.s.]$, 질박차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158)=5.39, p<.01]$. 그리하여 질박차원에서 집단간

표 6. 위생과 질박차원에서 이담기와 이안담기에 대한 변별값(SD)

집 단	변 별 값	
	위생차원*	질박차원**
옹호 (n=62)	4.59 (1.26)	1.72 (1.95)
반박 (n=44)	4.61 (1.33)	2.39 (1.74)
통제 (n=55)	4.04 (1.85)	1.15 (2.09)

* 더럽다(1) - 깨끗하다(7) 등의 3가지 의미미분척도에서의 변별값

** 귀찮다(1) - 편하다(7) 등의 3가지 의미미분척도에서의 변별값

표 7. 기술차원과 평가차원에서 이담기와 이안담기에 대한 변별값(SD)

집 단	변 별 값	
	기술차원	평가차원
옹호 (n=62)	4.48* (1.70)	2.04 (1.52)
반박 (n=44)	4.93 (1.80)	1.62 (1.21)
통제 (n=55)	3.75 (1.92)	2.22 (1.65)

* 최저 변별값(0) ~ 최고 변별값(8.485)

개별비교를 한 결과 반박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다른 집단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통제 대 반박: $F(1, 97)=9.65, p<.01$; 통제 대 옹호: $F(1, 115)=2.32, n.s.$; 옹호 대 반박: $F(1, 104)=3.13, n.s.$]. 이 결과는 실험1의 결과와 같게 나타난 것으로 반박훈련이 피험자들로 하여금 이담기 지지준거와 함께 이안담기 지지준거도 갖게 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거듭 입증하는 것이다.

표 7은 그림 1에서 평가차원 변별값(y)과 기술차원 변별값(x)을 구한 것이다. 표에서 반박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평가차원 변별값은 적은 데 비하여 기술차원 변별값은 크게 나왔다. 이 추세는 반박훈련이 이담기와 이안담기를 평가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보려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기술차원에서 이 양자를 변별하려는 경향을 증대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결과분석에서 기술차원 변별값에서는 반박집단과 지지집단의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박 대 통제: $F(1, 97)=9.87, p<.01$; 옹호 대 통제: $F(1, 115)=4.75, p<.05$; 반박 대 옹호: $F(1, 104)=1.79, n.s.$]. 따라서 실험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차

표 8. 차원 분류과제에서 과제유형에 따른 집단별 오답량(괄호안은 SD)

집 단	과 제 유 형		
	단 일 차 원	상 관 차 원	직 교 차 원
옹호 (n=62)	.87*(1.27)	.16(.16)	2.90(2.64)
반박 (n=44)	1.06(1.19)	.50(1.37)	2.55(1.94)
통제 (n=55)	2.02(1.90)	.65(.65)	4.30(2.50)

* 최저 오답량(0) ~ 최고 오답량(8)

표 9. 공격처치 전후에 이답기와 이안답기에 대한 태도(괄호안은 SD)

집 단	태		도	
	이 답 기*		이 안 답 기**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옹호 (n=62)	6.37(1.77)	5.53(1.49)	6.31(1.05)	5.25(1.66)
반박 (n=44)	6.05(1.20)	5.64(1.30)	6.23(.99)	4.91(1.17)
통제 (n=55)	6.40(1.16)	4.09(2.24)	5.46(2.04)	4.51(1.98)

* 이답기 태도는 나쁘다(1) - 좋다(7)로 환산한 점수임

** 이안답기 태도는 좋다(1) - 나쁘다(7)로 환산한 점수임

원변별값에서는 반박집단에서만 이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박 대 통제: $F(1,97)=4.03, p<.05$; 옹호 대 통제: $F(1,115)=.37, n.s.$; 반박 대 옹호: $F(1,104)=2.29, n.s.$]. 이 결과도 실험1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거기서도 반박집단에서만 평가차원 변별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결과에서 반박집단은 이답기와 이안답기의 두 행동을 평가차원에서 대립시키지 않는 반면에, 옹호집단은 이들을 평가차원에서 대립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차원분류과제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났다. 표 8은 각 과제유형에서 피험자들이 범한 오답량을 집단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과제 유형에 따라 오답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단일차원에 비하여 상관차원에서 오답량이 감소하는 촉진효과와 직교차원에서 오답량이 증가하는 간섭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그리하여 촉진효과와 간섭효과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촉진효과에서는 반박집단과 옹호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통제 대 옹호: $F(1,115)=6.12, p<.05$; 통제 대 반박: $F(1,97)=6.81, p<.01$; 옹호 대 반박: $F(1,104)=.32, n.s.$]. 그러나 간섭효과에서는 옹호집단과 반박집단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 옹호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반박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였다[통제 대 반박: $F(1,97)=4.22, p<.05$; 통제 대 옹호: $F(1,115)=.32, n.s.$; 옹호 대 반박: $F(1,104)=1.73, n.s.$]. 반박집단에서 통제집단에 비하여 간섭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실험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박훈련은 촉진과 간섭의 두 효과에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옹호집단에서는 촉진효과의 감소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반박훈련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을 분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공격처치와 태도의 변화

공격처치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사전과 사후검사에서의 피험자의 태도를 표 9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사전훈련이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전검사의 결과에서 이답기 태도에 대해서 집단간의 변량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F(2,158)=1.77, n.s.$].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반박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

여 가장 비호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안담기 태도에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158)=5.19, p<.01$]. 통제집단에 비해서 옹호 집단과 반박집단의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가 더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

공격처치를 받은 후에 이담기 태도에서의 변화를 집단×측정시기의 2원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측정시기에 다른 주효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1, 158)=70.26, p<.001$], 집단×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왔다 [$F(2, 158)=16.34, p<.001$]. 그리하여 사전과 사후검사에서 태도변화를 각 집단별로 분석해 본 결과 반박집단에서는 사전태도와 사후태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태도가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F(1, 158)=3.70, n.s.$]. 그러나 옹호집단이나 통제집단에서는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옹호 : $F(1, 158)=21.87, p<.001$; 통제 : $F(1, 158)=100.33, p<.001$]. 따라서 공격처치 후의 이담기 태도에서의 변화가 실험1의 결과와 같이 반박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표 9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사후에서 이담기 태도의 변화가 실험1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실험1에서는 공격을 받기전에 옹호와 반박 집단간에 태도의 차이가 없다가 공격을 받은 후에 두 집단간에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2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옹호와 반박 집단간의 태도의 차이가 공격을 받기도 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후에는 두 집단에서의 태도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2에서 반박집단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공격을 받기 전에 이미 그의 태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결과는 사전경고의 효과를 다른 연구들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McGuire와 Millman(1965)은 사전경고가 태도변화에서 두가지 역할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하나는 사전무장을 시켜 공격에 저항력을 높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전경고만 받고도 경고방향으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 후자의 효과를 그들은 설득장면에서 사람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하였다. 우리의 실험에서 사전경고는 반박집단에서 후자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반박집단은 공격에 앞서 미리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실제 공격

에서는 자신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의 분석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전경고를 받고 오히려 이안담기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같은 추세는 반박집단과 옹호집단에서 함께 나타났다. 따라서 이안담기 태도에서 사전경고의 효과는 이담기 태도에서와 반대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격후에 태도의 변화는 세 집단 모두에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사전과 사후 태도간의 차이 검증은 내 본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옹호 : $F(1, 158)=38.83, p<.001$; 반박 : $F(1, 158)=38.33, p<.001$; 통제 : $F(1, 158)=24.82, p<.001$]. 이 결과는 실험1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2에서 나타난 결과도 실험1과 마찬가지로 반박훈련은 피험자로 하여금 이담기 태도와 이안담기 태도를 이원적으로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담기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이안담기 태도는 변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공격처치를 받기전과 후의 이담기 태도에서의 변화량과 이안담기 태도에서의 변화량사이의 상관을 내어 본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상관이 옹호집단에서는 $r=.32(p<.05)$ 인데 반하여 반박집단에서는 $r=.08(p>.05)$ 이 나왔다. 이 결과는 실험1에서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옹호 집단은 이담기 태도의 변화와 이안담기 태도의 변화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반박집단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사전경고를 조작한 실험2의 결과는 사전경고를 조작하지 않는 실험1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반박훈련을 통한 면역효과가 사전경고의 효과와는 서로 다른 것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사전경고는 반박집단이나 옹호집단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면역의 효과는 반박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반박집단에서 태도의 구조가 이원적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이담기에 대한 태도도 변화되지 않았다.

종합논의

태도의 면역현상을 처음으로 연구한 McGuire(1964)

는 신체질환에서 나타나는 면역현상에서 태도의 면역을 유추했다. 생물학적 면역은 인체가 약한 병원과 싸워 일단 저항력을 갖게되면 장차 강한 병원균이 침투하더라도 이를 이겨내는 현상이다. 그는 개인의 태도도 그것을 위협하는 약한 부정적 정보에 자주 노출되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면 장차 강한 설득에 부딪혔을 때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문화적 공리를 태도대상으로 삼아 피험자에게 그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주고나서 이를 반박해 보도록 훈련시킨 결과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피험자와 비교해서 설득에 저항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하여 그는 이 결과가 반박훈련을 통해서 피험자들이 장차 올지도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동기를 갖게되며 또한 방어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즉 반박훈련의 효과를 대부분의 학습이론에서 나타나는 두개의 중요한 변인인 동기와 연습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에 태도변화에서 사전경고의 효과를 연구한 학자들은 공격에 앞서서 사전경고를 하게 되면 McGuire가 면역현상으로 설명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즉 사전경고를 하게되면 사람들은 공격에 대비하려는 동기가 유발되며 또한 방어연습을 하여 사전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박훈련을 통해서 형성하는 면역효과는 사전경고의 효과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태도에서는 사전경고만 받고도 생물학적 면역에서 나타나는 항체와 같은 것이 생성된다는 말인가라는 반문이 제기된다. 이같은 반문은 McGuire가 태도의 면역을 생물학적 면역에서 나타나는 항체에 비견될 수 있는 태도에서의 항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사실 그는 태도의 면역이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다고만 말했지 그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는 항체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공격에 저항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태도의 면역에서 나타나는 항체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공격에 저항력을 갖게 되는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은 반박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구조가 양극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공격에 저항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양극적이라 함은 대립되는 두 태도 예컨대, 이단기 지지자와 이안단기 지지자를 단일차원에서 양극에 위치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주어진 대립이 양극적이 되려면 이들 태도들의 준거가 같아야 한다. 준거가 서로 다른 태도들은 주어진 태도대상의 두 측면 즉, 이원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반박훈련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이단기 지지준거(위생가치)와 이안단기 지지준거(질박가치)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두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터해서 형성된 것으로서 인식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이단기와 이안단기에 대해서 이원적 태도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데 개인의 태도구조가 이렇게 이원적이 되면 이단기와 이안단기 태도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것은 이단기와 이안단기를 서로 다른 판단준거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도의 구조가 양극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이단기에 찬성하는 것은 곧 이안단기에 반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두 태도를 하나의 판단준거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도의 구조가 양극적일 때 대립되는 두 태도 이단기와 이안단기중 어느 한 태도가 결정되면 다른 태도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원적일 때는 대립되는 두 태도중 어느 한 태도의 결정이 다른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설득공격에 대해서 이단기와 이안단기중 설득 방향에 따라 어느 한 쪽 태도는 바뀌지만 다른 쪽 태도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 쪽 태도의 변화가 다른 쪽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도의 구조가 양극적일 때는 어느 한 쪽 태도의 변화는 다른 쪽 태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쪽 태도가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단기에서 설득의 방향이 이안단기 태도의 준거인 '질박가치' 즉, 이단기의 나쁜 면(번거롭다)과 이안단기의 좋은 면(간소하다)을 가지고 공격하였기 때문에 반박집단은 이안단기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지만 이단기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옹호집단이나 통제집단은 태도구조가 양극적이기 때문에 이안단기는 물론 이단기에 대한 태도도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위의 가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반박집단의 피험자들은 그들의 태도구조가 양극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예언대로 바뀌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반박집단에서 태도구조의 이원성을 알아보았는데 첫째, 반박훈련은 이당기 지지준거인 위생가치와 이안당기 지지준거인 질박가치를 동시에 갖도록 하는가와 둘째, 반박훈련은 이당기와 이안당기를 평가차원에서 대립되게 보게하지 않고 기술차원에서 대립되게 보게 하는가였다. 그 결과 이 두 예언이 모두 입증되었다.

옹호집단이나 통제집단에서는 이당기 지지준거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반박집단에서는 이당기 지지준거는 물론 이안당기 지지준거도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박집단은 이당기와 이안당기를 평가차원에서 대립시키기 보다는 기술차원에서 대립시키는 추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옹호집단이나 통제집단에서는 이들을 평가차원에서 대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실험1과 실험2에서 똑같은 추세로 나타났다.

여기서 태도구조의 이원성에 대한 분석으로 이당기와 이안당기에 대한 지각차원이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아 본 것은 피험자들이 이당기 지지준거와 이안당기 지지준거를 모두 갖게 되면 태도대상에 대한 그들의 지각차원이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수원과 김태준(1988)의 연구에 쫓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당기에서 위생가치와 질박가치의 두 가지 준거를 모두 갖게 되면 이당기와 이안당기중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당기는 위생가치(예, 청결하다)로 보면 좋지만 질박가치(예, 번거롭다)로 보면 나쁘며, 또한 이안당기도 위생가치(예, 불결하다)로 보면 나쁘지만 질박가치(예, 간편하다)로 보면 좋기 때문에 이당기와 이안당기를 좋다—나쁘다의 평가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게 된다. 그 대신 이당기와 이안당기를 전자는 위생이 요구될 때 하는 행위이며, 후자는 질박이 요구될 때 하는 행위이다와 같이 기술차원에서 이 양자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이당기와 이안당기의 지각차원을 분석한 것은 피험자들이 이당기에서 위생가치와 질박가치의 두개의

준거를 모두 갖고 있는 가를 거듭 검토하기 위하여 분석되었다. 결과도 예언대로 나왔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로부터 반박훈련은 태도의 구조를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변화시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사전경고를 해준 집단이나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모두 같게 나왔다. 따라서 반박훈련을 통해서 획득되는 태도구조의 이원성은 사전경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실험에서 반박집단의 피험자들은 예언대로 공격을 받으면 이안당기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지만 이당기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지 않는 반면에, 옹호집단이나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이안당기와 이당기의 양쪽 태도가 모두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실험1과 실험2의 결과에서 모두 예언대로 나왔다. 따라서 반박집단의 피험자들은 그들의 태도구조가 이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득의 방향에 따라 이당기에 대한 태도는 바꾸지 않고 이안당기에 대한 태도만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옹호집단이나 통제집단은 그들의 태도구조가 양극적이기 때문에 이당기와 이안당기에 대한 태도가 모두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는 사전경고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박훈련의 효과는 사전경고의 효과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전경고를 한 실험2에서 공격에 따른 이당기의 태도변화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실험1에서는 반박집단에서 이당기에 대한 태도가 사전과 사후검사 모두에서 변화되지 않은 반면에 실험2에서는 반박집단에서 태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사전경고를 받고난 직후에 측정된 사전검사에서 미리 변화하기 때문에 공격처치에 따라서는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박집단에서는 이당기에 대한 태도가 사전경고를 받고 변화되었으며, 공격처치를 받고는 변화되지 않는 반면에 옹호집단이나 통제집단은 사전경고시에는 변화되지 않고 공격처치를 받고 변화되었다. 여기서 반박집단에서 사전경고만 받고도 태도변화를 일으킨 것은 사전경고의 효과를 분석한 McGuire와 Millman(1965)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들은 사전경고의 이같은 효과를 남의 설득에 굴복당할 때 입게 되는 자존감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대비를 하는 일종의 인상관리전략으로 보았다. 사실 이 실험에서도 반박

집단의 피험자들은 사전경고시에 미리 태도를 바꾸므로써 실제 공격에서는 그것에 맞서 태도를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사전경고를 반박집단과 옹호집단의 두 집단 모두에게 주었는데 사전경고의 효과는 옹호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반박집단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담기에 대한 사전검사에서 옹호집단의 태도는 사전경고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과 같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경고의 효과가 옹호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사전경고의 효과가 반박집단에서만 나타나고 옹호집단에는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두 집단사이의 훈련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옹호집단은 자신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이담기의 좋은 면을 보여 주고 그것을 옹호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담기에 대해서 좋은 면만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반박집단은 자신들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이담기의 나쁜 면을 보여주고 그것을 반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담기의 좋은 면만 아니라 나쁜 면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사전경고에 대한 대비로서 두 집단 모두에서 호의에서 비호의로의 태도의 이동을 시도하지만 옹호집단은 태도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가용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반면에 반박집단에서는 이담기에 대하여 나쁜 면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태도의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태도의 이동은 반박집단에서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앞서 인용한 Katz와 Hass(1988)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들의 연구에서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품고 있는 원인을 그들이 갖고 있는 상반된 가치에서 찾았다. 즉 청교도 윤리관에 준거해서 흑인을 보게되면 비호의적으로 나타나며 호혜평등주의에 준거해서 보게되면 호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양가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흑인에 대하여 호의적 태도를 갖게하는 준거와 비호의적 태도를 갖게하는 준거를 동시에 갖게되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태도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사회적 태도가 언제나 특정한 하나의 준거에 대해서 형성된다고 전제할 때 준거의 이

동을 동반하지 않는 태도의 이동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태도의 이동에 필요한 준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태도의 이동은 가능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담기에서 이담기 지지준거와 이안담기 지지준거를 동시에 갖고 있는 반박집단에서는 상황에 쫓아 그때 그때 준거를 달리함으로써 태도의 이동이 가능하였던 반면에 이담기 지지준거만을 갖고 있었던 옹호집단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전경고를 통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사전경고를 받고 태도의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태도의 구조자체가 이원적으로 되어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태도의 면역효과는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의 태도구조에서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여기서 태도의 이원적 구조가 함축하고 있는 심리적 의미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태도의 이원성은 한 개인이 태도의 대립을 유발하는 두가지 상반된 준거 예컨대, 이담기 지지준거(위생가치)와 이안담기 지지준거(질박가치)를 동시에 갖게 됨으로서 대립되는 태도들이 서로 다른 준거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이담기와 이안담기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에 터해서 형성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태도를 태도대상 자체의 속성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대상을 판단하는 준거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보게 된다. 여기서 태도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준거를 분리해서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 대상을 준거와 분리시켜 보지 못할 때 그 대상에 대한 태도는 절대적이 된다. 왜냐하면 태도를 대상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립되는 두 태도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게되어 양립시킬 수가 없게 된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쪽 태도가 옳으면 다른 쪽 태도는 그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어진 태도가 대상의 속성에서 비롯되었기 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준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되면 태도가 상대적이 된다. 왜냐하면 같은 대상이라도 그 대상에 대한 준거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준거들로부터 형성되는 태도들을 양립시킬 수가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 준거

를 달리하는 각각의 태도들은 적어도 주어진 증거 안에서 타당성을 갖고 태도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 진다. 그리하여 이들 태도들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 각기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각각의 태도들을 서로 다른 준거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태도의 이원적 구조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태도의 이원성은 대립되는 태도들을 각각 준거를 달리 해서 봄으로서 이들 태도들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각기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서로 대립되는 이단기 태도와 이안단기 태도를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각기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이 왔을 때 한 쪽 태도에서의 변화가 다른 쪽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공격에 영향을 받는 범위를 축소시켜 준다. 그러나 태도의 구조가 양극적일 때는 대립되는 태도들을 서로 배타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 쪽 태도에서 변화가 다른 쪽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어서 결국 양 쪽 태도가 모두 변하게 된다.

그런데 태도의 구조를 이원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이렇게 공격에 노출시키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현상은 그동안 성격이나 인지구조의 분화를 다룬 학자들로부터 다각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성격발달에서 분화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Lewin(1935)은 성인은 아동보다 긴장 체계가 훨씬 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성인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 긴장을 일으키는 부위가 적은데 비하여 아동은 긴장을 일으키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긴장상태에서 균형상태로 돌아가려 할 때 발생하는 정신에너지도 아동에게서 더 많이 방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에 비해 동일한 압력에 대해서도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Linville(1987)은 인지복잡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와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자아상이 분화되어 있는 사람은 미분화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를 덜 느낀다고 보았다. 아내와 테니스 선수로서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혼상황에서 '나는 훌륭한 아내는 못되지만 훌륭한 테니스 선수다'와 같이 아내와 테니스 선수로서의 자기를 분리시켜 아내에 해당하는 자기상만을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그러나 아내로서의 자아상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혼상황에서 자아상 전체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들은 비록 성격구조의 분화문제를 다루었지만 태도구조의 분화를 통해서 공격에 노출되는 부위를 축소시키는 태도의 면역현상과 그 맥을 같이하는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심리적 구조에서 분화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보았다. 환언하면 이들 연구들은 심리적 구조의 분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양식을 탐구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화는 발달의 기본 기제중에 하나이다. 분화수준은 모든 심리적 구조에서 성숙의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공격에 노출되는 부위를 줄이는 태도의 면역현상도 태도구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신건호(1986). 태도변화의 두 과정 : 태도의 누적적 이동과 교체적 이동. *한양대사대논문집*, 4집, 75-109.
- 이수원, 김태준(1988). 조망과 태도 : 태도의 변형생성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7권 2호, 75-95.
- 이수원, 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 태도차원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회지*, 4권 1호, 155-181.
- 이수원, 신현숙(1986). 태도의 차원구조 : 발달적 조명. *한국심리학회지*, 6권 3호, 137-262.
- Hass, R.G., and Grady, K. (1975). Temporal delay, type of forewarning and resistance to influ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459-469
- Katz, I. and Hass, R.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iesler, C.A., Collins, B.E., & Miller, N. (1969). *Attitude change: A critical analysis of theoretical approaches*. New York : Wiley.
- Kerlinger, F.N. (1967). Social attitude and their criterial referents : A structur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74, 110-122.
- Lewin, K. (1935).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Linville, P.W.(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McGuire, W.J.(1964). Inducing resistance to persuasion:

Some contemporary approaches.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91-229.

McGuire, W.J. and Millman, S.(1965). Anticipatory belief lowering following forewarning of a persuasive att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471-479.

원고 초 본 접수 : 1989. 7. 1

원고 수정본 접수 : 1989. 9. 10

Inoculation Mechanism on Attitude : From Bipolarity to Duality

Soo-Won Lee and Young-Hun Lee

Hanyang University

Inoculation on attitude is a phenomenon that people resist strong persuasive attacks, through forming an 'antibody' in his own attitude, if he would be frequently exposed to the information to threat his own attitude. However, Characteristics of the antibody has not been discovered.

This study was designed on the assumption that attitudinal inoculation results from the change of attitudinal structure, that is change, from bipolarity to duality structure. We suppose that inoculation treatments make people concieve two opponent attitude-objects, 'teeth-brushing' vs 'non-teeth-brushing', from exclusively existing each other(bipolarity structure) to simultaneously standing together(duality structure). Because two opponent attitudes in the duality structure are determined independently, attitude toward 'non-teeth brushing' is changed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persuasive attack with 'non-teeth brushing' but attitude toward 'teeth-brushing' is not changed. Those assumptions were supported by two experiments.